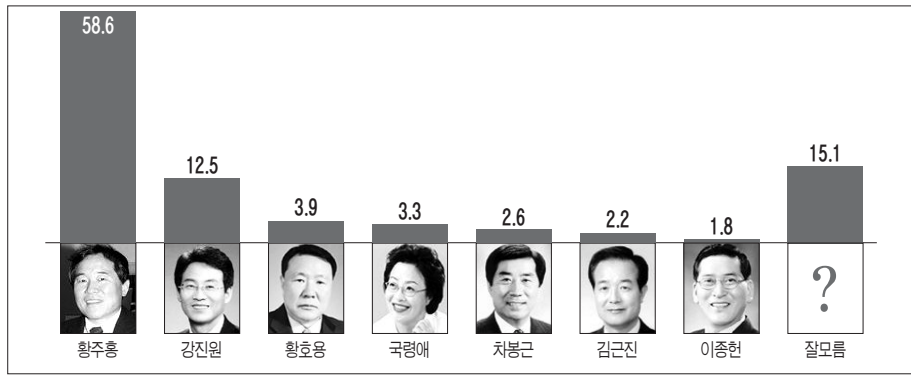


# 2010 지방선거 여론조사 <전남 기초단체장>

## 무소속 돌풍 관심

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민주당이 고전하고 있어 무소속 돌풍이 지속될지도 관심이다. 신안에서는 무소속인 박우량 군수가 51.4%의 지지율로 민주당 공천 경쟁에 나선 모든 후보를 여유있게 제쳤고 나주에서도 신정훈 시장이 직무정지 상태임에도 34.7%의 지지율로 1위를 달리고 있다. 3선을 노리는 단체장들은 대선에 대한 거부감에도 불구하고, 선두를 질주하고 있다. 목포시의 경우 정종득 현 시장이 38.3%의 지지율로 3선 고지를 향해 쟁쟁음을 재확인하고 있으며 이상웅 현 광양시장도 36.7%의 지지율 얻어 다른 후보자들을 제치며 3선 고지를 향해 다가서고 있다.

/김지을기자 dok2000@kwangju.co.kr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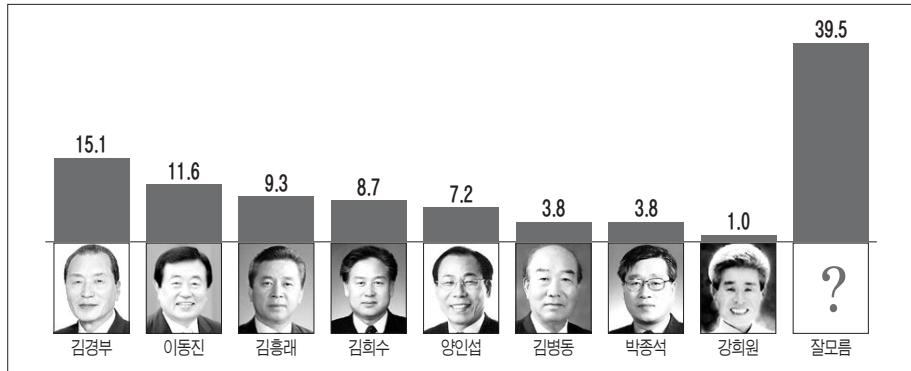


### 무소속 황주홍 58.6%... 단체장중 가장 높아

#### 강진원

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황주홍 현 군수가 58.6%의 높은 지지율을 기록, 다른 후보들을 현저히 앞서가고 있다. 황 군수는 전국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 운동을 주도하다가 정당공천제를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자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뒤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는 상태다.

황 군수의 지지율은 광주·전남 기초단체장 중에서 가장 높았고, 지난 여론조사(31.7%)에 비해서는 무려 26.9%포인트나 급등했다. 지난 조사에 비해 부동층(27.8%→15.1%)이 감소한 게 눈에 띈다. 강진원 전 전남도국장이 12.5%로 뒤를 이었고 황호용 전남도의원 3.9%, 국령애 전남도의원 3.3%, 차봉근 전 전남도의회 의장 2.6%, 이종현 전남도의원 1.8% 순이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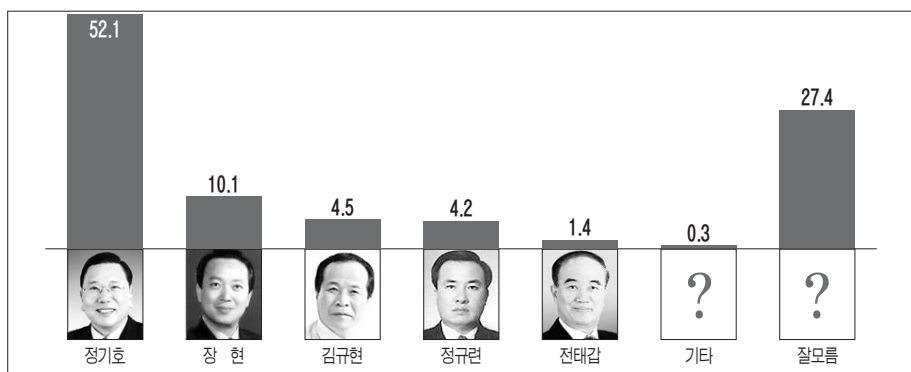


### 지지자 못찾은 부동층 39.5% 선거 변수

#### 진도군수

박연수 전 군수가 비리 혐의로 도중하차하면서 입지자들이 일찍 몰려들어 세 불리기 경쟁이 치열하다. 김경부 전 진도군수가 15.1%의 지지율로 선두로 올라섰지만, 이동진 전 전남개발공사 사장이 11.6%의 지지율로 뒤를 쫓으며 오차범위(±5.66%) 내에서 접전중이다.

이러 김흥래 전 행정부 차관(9.3%), 김희수 진도군 환경복지과장(8.7%), 양인섭 전 진도군수(7.2%) 등이 추격하고 있다. 하지만, 부동층이 39.5%로, 10명 중 4명이 아직 지지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부동층의 향배가 선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. 김 전 군수는 남성(19.2%)과 40대(23.9%) 등에서, 이 전 시장은 고졸(20.6%)에서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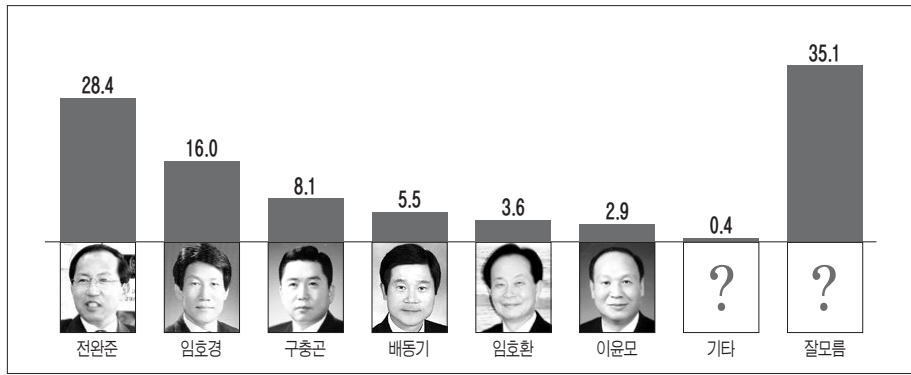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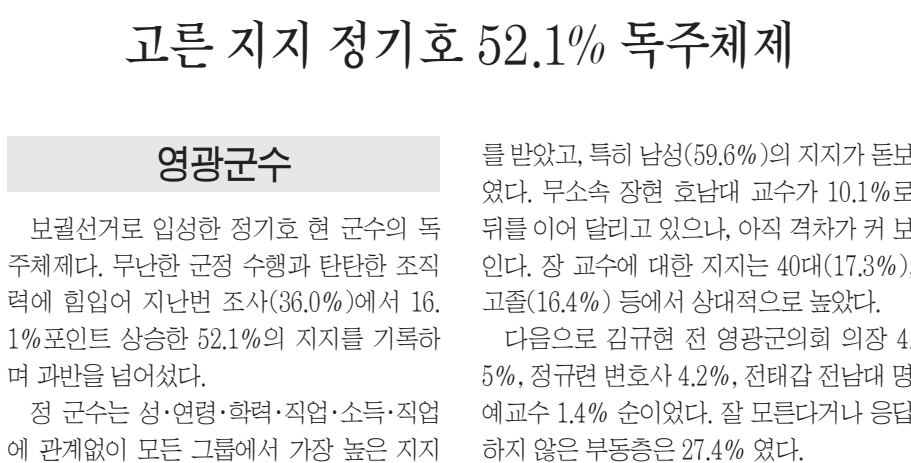


### 고른 지지 정기호 52.1% 독주체제

#### 영광군수

보결선거로 입성한 정기호 현 군수의 독주체제다. 무안성 정수행과 탄탄한 조직력에 힘입어 지난 조사(36.0%)에서 16.1%포인트 상승한 52.1%의 지지를 기록하며 과반을 넘어섰다. 정 군수는 성·연령·학력·직업·소득·직업에 관계없이 모든 그룹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고, 특히 남성(59.6%)의 지지가 돋보였다. 무소속 장현 호남대 교수가 10.1%로 뒤를 이어 달리고 있으나, 아직 격차가 커 보인다. 장 교수에 대한 지지는 40대(17.3%), 고졸(16.4%)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. 다음으로 김규현 전 영광군의회의장 4.5%, 정규현 변호사 4.2%, 전태갑 전남대 명예교수 1.4% 순이었다. 잘 모른다거나 응답하지 않은 부동층은 27.4%였다.

이석형 전 군수가 민주당 전남도지사 경선에 나서면서 빈자리에 3명의 민주당 입지자가 공천경쟁을 벌이고 있다. 전번 조사에서와 마찬가지로 안병호 전 함평 축협조합장이 가장 가까이 군수직에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. 안 전 조합장이 33.3%를 얻으며 1위를 달렸다. 나병기 전남도의회이 19.4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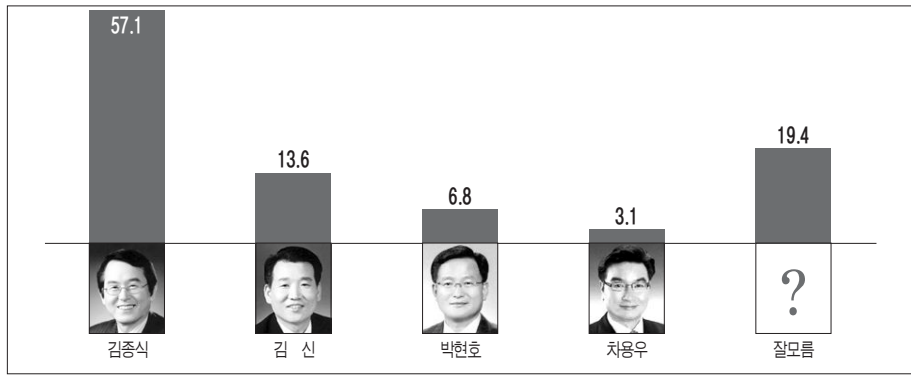


### 전완준 현 군수-임호경 전 군수 맞대결

#### 화순군수

전완준 현 화순군수와 임호경 전 화순군수의 맞대결이 관심을 끈다. 전 군수와 임 전 군수 모두 지난 신년 조사에 비해 소폭이나마 상승세를 보이는 등 양측이 벌써부터 치열한 삽바싸움을 벌이고 있다. 전 군수는 이번 조사에서 28.4%의 지지율로 1위를 차지했다. 지난번 조사에 비해서는 5.7% 포인트가 올랐다. 임 전 군수는 16.0%

로 뒤를 이었다. 지난번 조사보다는 0.4%포인트가 상승했다. 다음으로는 구종근 전남도의회이 8.1%, 배동기 전 화순 부군수가 5.5%, 임호환 전 농업기반공사 전남본부장이 3.6%를 각각 기록했다. 이운모 전 전남도 공무원교육원장은 2.9%였다. 전 군수는 50대(39.8%)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확보했으며, 임 전 군수는 40대(23.7%)의 지지가 돋보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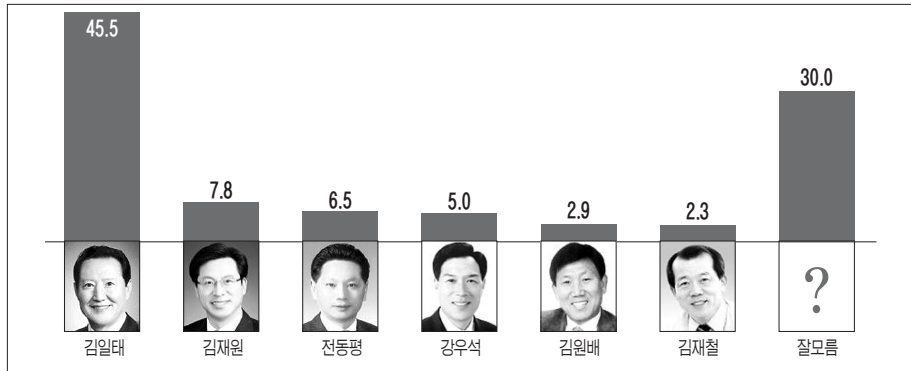


### 김종식 현군수 지지율 과반수 돌파

#### 완도군수

김종식 현 완도군수의 '3선 성공'이 최대 관심사다. 폭넓은 지지층과 탄탄한 조직력으로 3선 고지를 향해 달리는 김 군수는 이번 여론조사에서 57.1%의 압도적인 지지율로 선두를 달렸다. 김신 완도군의원이 13.6%로 김 군수의 뒤를 쫓았다. 지난 여론조사에서는 김 군수와 김 의원이 각각 31.3%, 25.5%

의 지지율로, 6% 이내에서 접전을 보였지만, 이번 조사에서는 김 군수가 김 의원을 압도했다. 또한, 지난 지방선거에서 김 군수에게 패한 박현호 전 완도부군수는 6.8%의 지지율을 보였다. 김 군수는 모든 성별·연령·학력·직업 등에 관계없이 고른 지지를 보였다. 김 의원은 남성(19.0%), 40대(22.5%), 고학력(대제 이상 26.3%), 자영업 종사자(48.3%)에서 지지를 획득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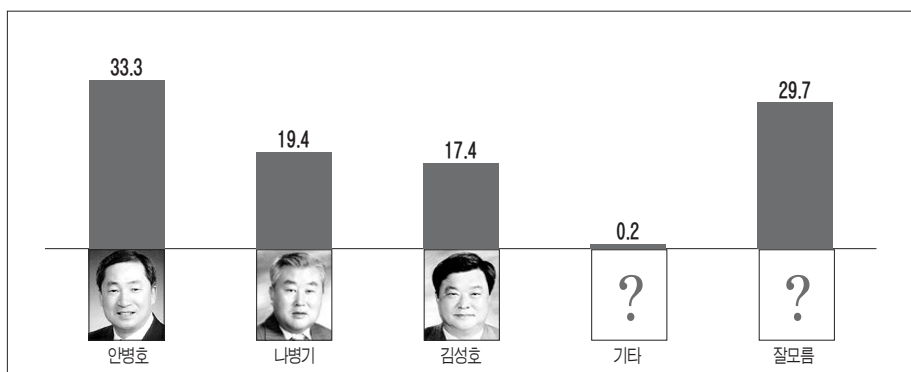


### 김일태 지지율 45.5% 군소후보들 압도

#### 영암군수

김일태 현 군수가 재선 고지를 향해 줄달음치고 있다. 김 군수는 탄탄한 지지 기반과 현역 프리미엄을 업고 과반에 육박하는 45.5%의 높은 지지율을 기록, 다른 후보들을 현저히 앞서가고 있다. 뒤를 이어 김재원 전 전남도 민원실장이 7.8%의 지지율로 바쁘게 따라붙고 있다. 현안 사업의 차질없는 추

진을 내걸고 재선 의지를 과시하고 있는 김 군수는 모든 계층에서 30% 이상의 지지를 받았다. 특히 40대(55.7%)~50대(55.9%) 연령층의 지지 응답이 많았다. 전동령 전 전남도의회은 6.5%로 김 전 실장의 뒤를 이었고 최근 도의원으로 방향을 튼 강우석 전남도의회은 5.0%의 지지를 받게 그쳤다. 또 김일배 영암발전연구소장은 2.9%, 김재철 전 전남도부지사 2.3% 순이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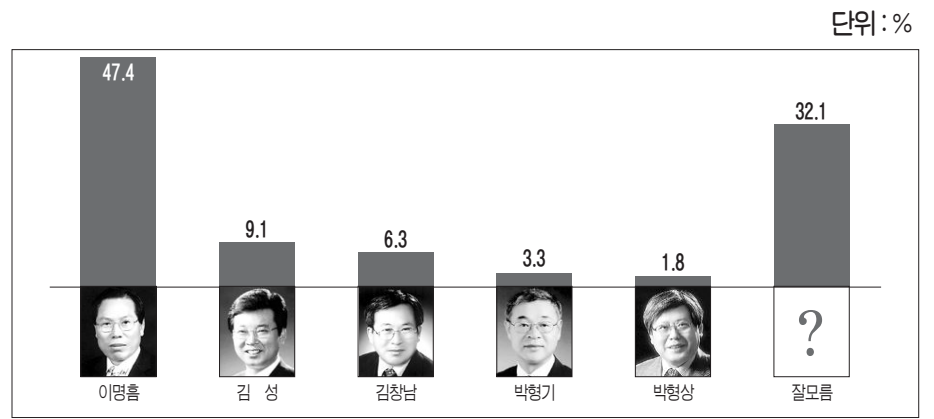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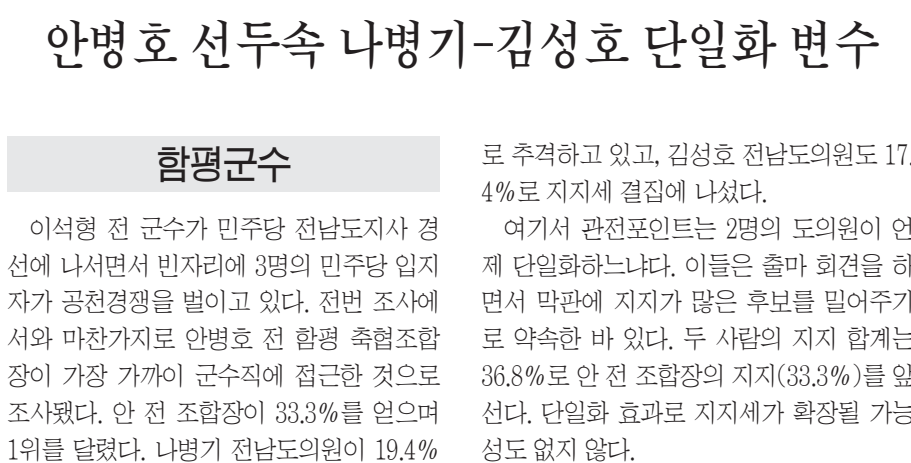


### 안병호 선두속 나병기-김성호 단일화 변수

#### 함평군수

이석형 전 군수가 민주당 전남도지사 경선에 나서면서 빈자리에 3명의 민주당 입지자가 공천경쟁을 벌이고 있다. 전번 조사에서와 마찬가지로 안병호 전 함평 축협조합장이 가장 가까이 군수직에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. 안 전 조합장이 33.3%를 얻으며 1위를 달렸다. 나병기 전남도의회이 19.4%

로 추격하고 있고, 김성호 전남도의원도 17.4%로 지지세 결집에 나섰다. 여기서 관전포인트는 2명의 도의원이 언제 단일화하느냐다. 이들은 출마 회견을 하면서 막판에 지지가 많은 후보를 밀어주기 로 약속한 바 있다. 두 사람의 지지 합계는 36.8%로 안 전 조합장의 지지(33.3%)를 앞선다. 단일화 효과로 지지세가 확장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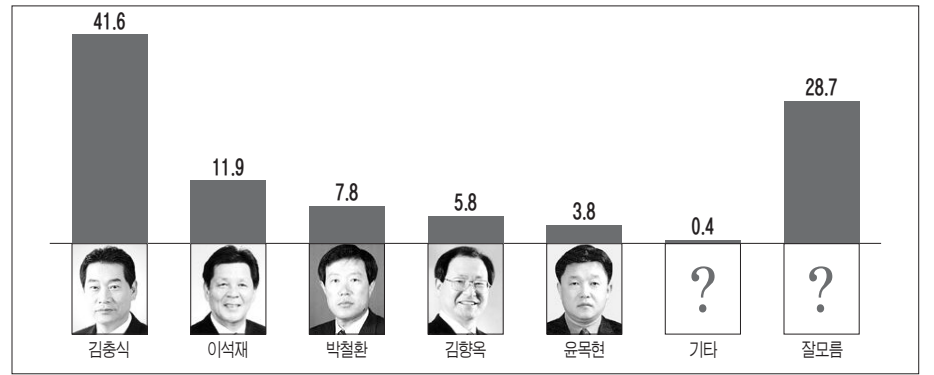


### 이명흠 재선가도에 김성·박형기 도전

#### 장흥군수

이명흠 현 군수가 47.4%라는 압도적인 지지율로 재선가도를 내달리고 있다. 지난번 조사에 비해서 무려 15.3% 포인트가 상승했다. 현재 가장 유력한 도전자로 손꼽히고 있는 김성 전 전남도의회은 9.1%로 다소 처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. 군수후보로 거론됐으나 도의원 출마의사를 굳힌 김창남 전남도의회이 6.3%로 뒤를 이었으며, 박형

기 민노당 장흥위원장이 3.3%의 지지율을 기록했다. '젊은 후보론'을 내세우며 최근에야 출마를 결심한 박형상 변호사는 1.8%의 지지율을 보였다. 이 군수는 모든 그룹에서 고루 높은 지지를 받았으며, 특히 남성(59.1%), 고졸(60.5%), 월평균 가구소득 150~249만원(67.0%)에서 지지율이 높았다. 김 전 의원은 19~29세(20.2%), 학력이 높을수록(대학재학 이상 14.7%)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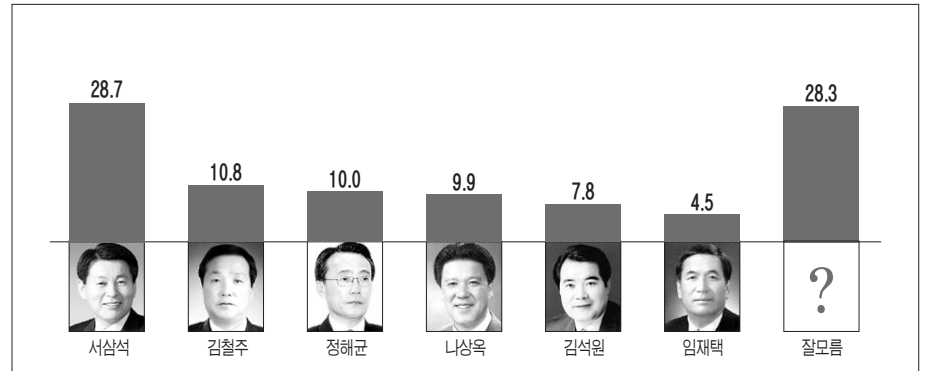


### 김충식 선두속 이석재·박철환 추격

#### 해남군수

지난 2007년 12월 보결선거로 당선된 김충식 군수의 재선 행보가 험하다. 이석재 전 전남도의회 부의장 등 유력 인사들도 바쁘게 뛰고 있다. 이번 조사에서 김 군수는 41.6%의 지지율로 다른 후보군을 30% 포인트 이상 따돌리며 독주했다. 지난번 조사에서 2위를 차지한 김석원 도의원이 군수 출마를 접

은 이후, 갈 곳 잃은 민심을 일부 흡수한 것으로 분석된다. 이어 이석재 전 전남도의회 부의장이 11.9%로 뒤를 쫓고 있는 양상이다. 다음으로 박철환 해남군의회 부의장이 7.8%, 김형욱 자연환경 대표이사 5.8%, 윤목현 전 무등일보 주필 3.8% 순으로 나타났다. 김 군수는 모든 응답자에게 고른 지지율을 보였으며, 특히 남성(46.6%)에게서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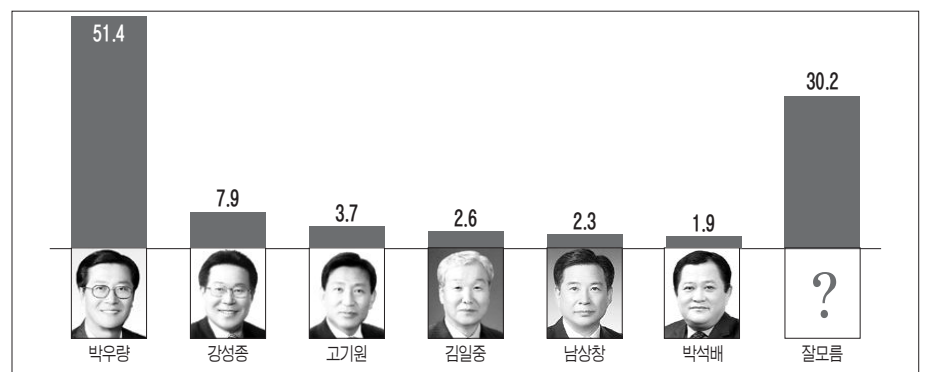


### 서삼석 상승세... 김철주·정해균 뒤쫓아

#### 무안군수

서삼석 군수의 3선 성공 여부가 무안군수 선거의 최대 관심거리다. 지지부진한 한·중 산단 조성 사업이 서 군수의 3선 고지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서 군수는 28.7%의 지지율로 선두를 유지하며 상승세를 타고 있다. 이어 김철주 전남도의회과 정해균 전 여

수부시장이 각각 10.8%와 10.0%의 지지율을 보이며 서 군수의 대항마로 부상했다. 이어 나상욱 목포·무안·신안 축협조합장(9.9%), 김석원 전남도의원(7.8%), 임재택 목포 문태고 교장(4.5%) 순이었다. 서 군수는 지난번 여론조사에 비해 지지도가 6% 가까이 상승했으며, 김철주 도의원은 이번 조사에서 정 전 부시장을 간발의 차이로 따돌리고 2위에 올랐다.



### 무소속 박우량 '고공행진'... 민주 대항마 찾기

#### 신안군수

무소속인 박우량 현 군수의 지지율이 51.4%에 달했다. 김대중(DJ) 전 대통령의 고향으로 민주당의 심장부에서 무소속 돌풍이 불고 있는 셈이다. 박 군수와 본선에서 겨룰 후보를 찾는 게 민주당의 최대 과제가 됐다. 박 군수의 지지율은 지난번 여론조사(43.1%)보다 8.3%포인트 오른 반면, 민주당 공

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다른 후보들의 지지율은 오히려 떨어졌다. 박 군수는 전 연령대에서 43.7%~66.7%에 이르는 높은 지지율을 받았다. 강성중 전남도의회은 7.9%로 박 군수를 쫓고 있지만 아직 세 걸음이 더 필요해 보인다. 고기원 한나라당 신안당협위원장 3.7%, 김일중 전 신안복지재단 이사장 2.6%, 남상량 전 진도군수 권한대행 2.3%, 박석배 동아공동체연구회장 1.9% 순이었다.

